



한성숙 총리, “철저한 준비와 반복적인 훈련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지키는 길”

- 한성숙 국무총리, 2026년 을지연습 사후강평회의 주재

한성숙 국무총리는 9월 18일(금)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행정기관장, 시·도지사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을지연습 사후강평회의를 주재하였다.

이번 회의는 지난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실시된 을지연습*의 주요 성과와 향후 발전방안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중점업체 등 4천여개 기관에서 58만여명 참여

먼저, 을지연습 주관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연습결과를 종합적으로 보고하였다.

이번 연습에서는 최근 다양화되고 있는 현대전 양상에 맞추어 AI를 활용한 가짜뉴스, 사이버공격, 드론테러 등 다양한 위기 상황을 상정하여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부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전시 대응절차를 훈련함으로써 실질적인 대응역량을 강화하였다.

또한, 기록적인 폭염이 있었던 올해 여름 상황을 고려해 폭염 특보 시 야외 훈련 지침을 도입하는 등 훈련 참가자 안전대책도 마련하였다.

이어서, 사후강평단장(정지용 예비역 육군준장)은 연습 총평 및 전시 국민보호, 국가 동원, 드론·대드론 운영 등 중점과제에 대한 토의식 사후강평을 진행하였다.

이번 을지연습에서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전시국민보호와 국가동원절차, 드론·대드론 운영 등의 계획을 확인·점검하는 데 의의가 있었다고 평가하며,

특히, AI·드론 등 신기술을 활용한 위협 양상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술 기반의 대비체계를 조속히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올해 연습 결과를 반영하여 비상사태 발생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 비상대비태세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오늘 회의에서 제시된 관계기관,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전시 국민 행동요령, 충무계획 등 비상대비계획을 보완하고, 내년에는 한층 개선된 비상대비 연습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올해 을지연습 결과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여, 정부의 비상대비태세를 발전·보완하는 계기로 삼아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정부가 국가의 기능을 유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평상시부터 철저한 준비와 반복적인 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공직자 개인이 각자의 임무를 명확히 숙지하고, 즉각 행동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담당 부서 <총괄>	국무조정실 안전 환경에너지정책관실	책임자	과장	김완수	(044-200-2346)
		담당자	사무관	윤성모	(044-200-2344)
담당 부서 <공동>	행정안전부 비상대비훈련과	책임자	과 장	홍경남	(044-205-4350)
		담당자	서기관	유은상	(044-205-4354)
		담당자	주무관	장봉규	(044-205-4353)